

행인 발길 뚝...식당가도 상가도 썰렁

신종 코로나 직격탄 맞은 광산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불똥'이 튀면서 지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가짜 뉴스가 퍼날라지면서 확진자가 머무르거나 갈만한 곳으로 추정되는 인근 상가는 발길이 뚝 끊겼고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퍼지고 있다.

5일 오후 광산구 장덕동 롯데아울렛 수완점. 2만200㎡(6110평) 규모로, 165개 매장장과 영화관으로 구성된 이 곳에는 손님보다 매장 직원이 더 많았다.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진자가 롯데아울렛 수완점 직원이다' '수완점이 폐쇄됐다' 등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롯데마트 수완점도 비슷하다.

지난 주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재고가 바닥나면서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의 최근 15일간(1월

SNS 통한 가짜 뉴스도 기승

중유학생 원룸촌 상가 개점휴업 동남아인 비하·혐오도 감지

20일~2월3일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줄었다.

롯데마트 3층에 들어선 8개 식당도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가 최근 예상치 못한 타격에 울상을 짓고 있다.

식당 종업원 A(35)씨는 "전날 정오경 광주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 뒤 매장 손님이 급격히 줄더니 점심손님을 한 팀만 받았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뒤송송한데 점포 운영 계획 등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 '원룸촌'이 들어선 호남대 인근 선운지구 상가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 일대 음식점은 점심시간임에도 1~2개 테이블만 채워졌다. 중국어 간판을 내걸고 운영했던 외국인 전용 휴대폰 대리점

은 당분간 휴업에 들어갔다. 호남대가 올해 신입생과 재학생 등 중국인 유학생 970여 명 전원에게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한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더 견뎌야 할 생각에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 인근에서 10년 간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해온 B(61)씨는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가게에는 정오까지 단 3명의 손님만이 가게를 찾았다. 이 일대 상인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근심에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에 머무르는 중국인과 태국 등 동남아인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인뿐 아니라 태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와 혐오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온라인 중심으로 퍼진 중국인·동남아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확진자가 머물렀던

'광산구'와 맞물리면서 '광산구 포비아'도 퍼져나가고 있다.

송정동에서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중국인 C(42)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인들이 대화만 나눠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인근에 사는 태국 국적의 D(여·47)씨도 "2008년 한국에 왔는데 올해 분위기가 가장 안 좋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화할 때 (나를 의심한 듯) 마스크를 갑자기 착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16·18번째 확진자와 광주21세기병원에 머문 사람들이 옮겨온 광주시공무원연수원의 광주소방학교 생활관 인근 주민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주시공무원연수원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던 E(67)씨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던 병원 환자들이 이곳으로 격리 조치를 당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이를 새 잇따라 발생하면서 5일 오후 광산구 장덕동 수완 롯데아울렛-마트(왼쪽)와 호남대 인근 상가를 찾는 발길은 뚝 끊긴 상태다.



졸업식 축소·돌봄교실 중단...신종 코로나 확산 광주 교육계 준비상

290개 유치원 6~7일 휴원 명령

대학 졸업식 취소·개강 연기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큰 말마져 확진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선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축소하거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잇따라 중단하고 나섰다.

광주 진흥고는 오는 7일 졸업식에 1·2학년의 등교를 금지시키는 한편 3학년은 각 반별로 졸업 앨범만을 수령토록 했다.

16번과 18번 확진자의 주거지 인근 17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전면 중단하고 공·사립 유치원 27곳의 교육활동도 일시 중지된다.

최근 개학한 광주 송원초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광주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과 학생들은 자가 격리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교육청은 광주 지역 290개 전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해 6~7일 이틀간 전면 휴원할 것을 명령했다.

어린이집도 혼란 속에 당초 계획된 일정들을 급히 조정하느라 분주하다.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은 안내문을

통해 "어린이집이 추진하고 있는 견학과 실외활동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서구의 한 유명 유치원은 학부모 우려 등을 고려해 임시 폐원을 검토중이다.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졸업식·입학식·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취소했다. 또 조선대와 전남대가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하는 등 대다수 대학들이 개강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호남대는 이달 중 중국 상하이대학과 절강과학기술대학에 '2+2 복수학위제' 협약에 따라 파견하기로 했던 중국어학과 3학년 학생(22명)의 1학기 교육

과정을 중국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호남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다음 달 2일 개학을 앞둔 모든 학교에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았거나 휴업 권고를 받았을 경우 등에는 휴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휴업,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도 조정하도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교직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입국일로부터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8 달뜨기 14:46
해질 18:05 달질 04:40

손씻기 생활화하자

아침기온 영하로 떨어지고 매우 춥겠다.

광주	구름많음	-7/5	보성	구름많음	-9/5
목포	구름많음	-5/2	순천	구름많음	-5/6
여수	구름많음	-5/4	영광	구름많음	-8/2
나주	구름많음	-8/4	진도	구름많음	-6/2
완도	구름많음	-4/4	전주	구름많음	-8/3
구례	구름많음	-9/4	군산	구름많음	-7/2
강진	구름많음	-6/4	남원	구름많음	-8/4
해남	구름많음	-8/3	축산도	구름많음	-1/2
장성	구름많음	-8/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북~북동	1.0~2.0	북~북동	0.5~1.0
면바다(북)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면바다(남)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남해서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면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 ☀️ 매우 높음
- ☁️ 감기
- ☀️ 매우 높음
- ☁️ 뇌졸중
- ☀️ 좋음
- ☁️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04:39	17:48	11:57	23:54
목포				
여수	00:30	13:31	07:19	19:22

◇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씨	☁️	☀️	☀️	☀️	☁️	☁️	☁️
기온	-3/7	1/8	-1/9	2/13	3/13	7/13	8/14

광주 초·중·고 검정고시 4월 11일 시행

광주시교육청이 2020년도 초·중·고제 1회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오는 4월 11일 시행할 계획이다.

검정고시 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17~21일 5일 동안 시교육청 별관 1층 원서 접수처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17~20일 4일 동안 '나이스대국민 서비스(https://kged.ge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원서계획을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를 통해 공고한다.

이번 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현장 접수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로 방문하도록 하고,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외국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가 원칙이지만,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을 포함한 거주자가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험 장소는 3월 30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전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5월 7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독일 직업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고 방문 교류행사

독일 도르트문트 RBB(Robert Bosch Berufskolleg) 직업학교가 광주 자동화설비공고를 방문해 교육·문화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일 광주자동화설비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독일 도르트문트 RBB 직업학교 학생 13명과 인솔교사, 교장 등

10여 명이 광주자동화설비공고를 찾아 1주일 일정으로 교육·문화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RBB 직업학교는 독일 도르트문트에 소재한 학생수 3000명, 교직원 130명인 주립학교로 IT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정읍 상생의 해 2019~20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Jeongeup-si Council